

보도 시점 2026. 7. 28.(화) 11:00 배포 2026. 7. 28.(화) 09:00
7. 29.(수) 조간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저항 씨돼지 개발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 종돈업계·관련 협회·연구기관 참여...국내 개발 필요성과 협력 방안 논의
- 오는 9월 민관 협의체 구성...질병 저항 종돈 개발 연구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7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종돈업계와 관련 협회,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피해를 줄일 질병 저항 종돈(씨돼지) 개발 방향과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돼지에서 번식 장애와 호흡기 증상을 일으켜 양돈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성 질병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다비육종, 농협 종돈사업소, 가야육종, 선진, 팜스코 등 관련 기관과 종돈업계 관계자,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질병에 강한 돼지 개발 연구 성과와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은 국내 질병 발생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개발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 사육 환경과 체계에 맞는 질병 저항 종돈의 국내 개발 필요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관련 기관과 종돈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를 위한 신규 연구사업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유동조 부장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은 양돈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병이다.”라며 “연구기관과 산업계가 협력해 우리나라 양돈 환경에 적합한 질병 저항 종돈을 개발하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개요 및 일정표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경태 (063-238-7250)
		담당자	연구사	이승훈 (063-238-7272)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개 요

- 일 시: 2026. 7. 29.(수), 14:00~16:00
- 장 소: 국립축산과학원 완주청사 본관 5층 강당
- 참석자: 국내 종돈업계 내·외부 전문가 20명 내외
 - (내부) 동물바이오유전체과, 가축개량평가과, 양돈과 내부전문가
 - (외부) 한국종축개량협회, 한돈협회, 다비육종, 농협 종돈사업소, 가야육종, 선진, 팜스코, 축산신문 기자 등 외부전문가

□ 일정표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3:30~14:00	■ 참석자 등록 및 환담	
14:00~14: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이경태 과장 동물바이오유전체과
14:05~14:10	■ 인사 말씀	유동조 부장 축산생명환경부
14:10~14:20	■ 국립축산과학원 질병 저항 돼지 연구 결과 발표 - PRRS 저항 CD163편집 종돈 개발 현황 등	오건봉 연구관 동물바이오유전체과
14:20~15:50	■ 내·외부 전문가 토론 - 국내 PRRS 발생·피해 및 산업체의 PRRS 질병 대응 현황 공유 - PRRS 저항 돼지 수입에 대한 업계 입장 및 국내 개발 필요성 논의 - 국내 PRRS 저항 돼지 민-관 협업 추진 시 역할 분담 및 고려 사항	(진행) 이승훈 연구사 동물바이오유전체과 (각 업체 전문가) 순차 발언 및 토론
15:50~15:55	■ 맺음말	이경태 과장 동물바이오유전체과
15:55~16:00	■ 기념 촬영 및 폐회	